

바닷가 절벽 위 홀로 선 그대

김선태 시집 '그늘의 깊이' 펴내

광주일보 신춘문예(1993)와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김선태(목포대 국문과 교수) 시인이 다섯 번째 시집 '그늘의 깊이'(문학동네)를 펴냈다. 그동안 시인은 남도 특유의 정서를 토대로 바닷사람들의 삶을 세밀하고 아름답게 묘사해왔다. 이번 시집에서도 시인은 더 깊어진 생활과 서정적 언어로 육안으로 보이는 바다와 마음 저편에 펼쳐진 바다를 감각적이면서도 세밀하게 드러내 보인다.

“아차 하면/ 순식간에 고향은 파도가 삼켜버려/ 내로라하는 곤돌도 차마 근접을 꺼리는// 삶과 죽음이 나란한 직벽에서/ 대물과의 한판승부가/ 끊어질 듯 팽팽한 반원을 그리는 곳”(‘절명여’ 중에서)

시인은 인간을 바닷가의 절벽 위에 홀로 선 존재로 인식한다. “삶과 죽음이 나란한 직벽”은 바닷가 사람들뿐 아니라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야 하는 모든 이들이 마주하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시집에서 눈에 띄는 ‘섬의 리비도’ 연작은 그간 시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바다를 해양민속생활사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시인은 “마음의 심연에 가라앉은 낡고 오래된 것들의 덕목을 건져 올려 다시 말갈게 씻어 말리고 싶다”며 “그 깊이와 향기로 천리를 가고 싶었다”고 발간 의미를 말한다. 한편 지금까지 펴낸 시집으로 ‘간이역’ ‘작은 염서’와 평론집 ‘풍경과 성찰의 언어’ 등이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



‘문화유산 보고’ 사직골 잔치

‘꿈꾸는 거북이’ 25일... 최부자집 공개

국가지정 보물 제109호 성거사지오층석탑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한 광주시 남구 사직동에서 마을 잔치가 열린다.

푸른 광주21협의회와 마을기업 꿈꾸는 거북이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사직동 최부자집(사진)과 일원에서 ‘사직 마을잔치’를 개최한다.

특히 최부자집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며, 1942년 상량(上樑)됐으며 한옥과 일본 건축양식이 혼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체험마당, 놀이마당, 노래마당, 영화마당, 먹거리 나눔마당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시부터 진행되는 체험마당에서는 냅킨아트, 유리 병공예, 3D프린터체험, 세월호 리본·팔찌 만들기 행사가 진행된다. 노래마당(3시30분)에서는 심인식·최정운씨의 색소폰 연주와 가요를 들을 수 있다.

문의 011-611-288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불꽃 사나이’ 신념, 음악이 되다

작곡가 강준일씨
‘서승 초상화’ 분 뒤
‘불의 전사’ 만들어

25일 광주시립미술관
‘畫音 프로젝트’ 공연



강준일씨 에르완 리사



정명창 작 ‘서승 초상화’

‘일자탄으로 타들어간 들판처럼 타 문드러진 얼굴.’ 인권운동가인 재일교포 서승(70·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법학과 특임교수)씨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서울대에서 수학한 그는 1971년 ‘재일교포 학생 학원집투 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비전향정치범으로 투옥돼 19년을 살았다. 고문을 받던 중 “살아서는 도저히 고문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고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난로의 석유를 온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는 독일에서 활동중인 정명창 화백이 그린 ‘서승 초상화’가 걸려 있다. 웃는 듯 우는 듯한 눈과 꼭 다문 입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림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화음(畫音)’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곡가 강준일(서울음악학회 대표)은 초상화에서 ‘불의 전사’ 이미지를 봤다. “자신의 신념을 장렬하게 불태운 신화의 주인공이 불굴의 정신으로 각인된 고통과 극복을 통해서 평화에 이르기까지의 승화된 모습”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강 씨는 두 대의 비올라와 첼로, 더블베이스로 연주하는 ‘불의 전사’를 작곡했고, 오는 25일 오후 4시 그림이 걸려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초연한다.

화음 프로젝트는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실내악곡을 해당 전시 공간에서 연주하는 프로그램이다. 실내악단 화음(畫音)으로 1993년 삼풍백화점 삼풍갤러리에서 시작한 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중단됐다. 2002년 남양주 서호미술관에서 화음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됐다.

지금까지 구스타프 클림트, 프리다 칼로, 신윤복, 김환기, 이두식 등 100여명 작가의 126개 작품을 대상으로 백병동·김성기 등 65명의 작곡가들이 작업했다.

지난 2011년부터 ‘화음프로젝트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최측은 올해 처음 전국으로 무대를 넓혔다. 지난 4일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린 ‘정물 화평도’를 시작으로 11월22일 대구시립미술관의 ‘하늘로 흐르는 강’으로 마무리된다.

강준일은 작곡 노트에서 “이번 작품은 ‘불’이 주제다. 불꽃의 사나이가 불굴의 신념으로 인해 불의 재앙을 당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소진했을 때 그의 아름다운 영혼이 승화되면서 구도의 업을 성취한다는 이야기 구성을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비올라, 더블베이스, 첼로 등 저음역에 속하는 악기를 활용하고, 바이올린 등에 비해 소외된 음향에 속하는 비올라와 더블베이스를 통해 그들의 세계에서 겪는 고통과 외침, 투쟁이 표현되길 바란다”고 썼다.

이날 공연에서는 윤이상의 비올라 듀오 곡 ‘응시’도 들려준다.

독일 바이마르 음대 교수 에르완 리사,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빈 문이 비올라를 연주하며 수원시향 수석 첼리스트 박노을, 더블베이스스트 김남균이 함께한다.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달콤한 이슬-1980 그후’에는 농치기 아까운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광주 정신’을 되새겨 보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17개국 5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어머니들’, ‘배고픔’, ‘살아남은 자들’ 등 케테 콜비치의 목판화 46점과 루신의 항일 목판화 58점, 1980년대 한국 민중미술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작품,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림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1월9일까지 계속된다. 화음 프로젝트의 작품들은 홈페이지에(www.hwau.com)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544-90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지택 작 ‘귀정’

경찰청에 퍼지는 미술 향기

광주미협, 내달 20일까지 ‘중견작가 초대전’

광주미협은 다음달 20일까지 광주지방경찰청 1층 로비에서 ‘중견작가 미술 작품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제69주년 경찰의 날’(지난 21일)과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시에는 백준선·문명호·문정호·류재웅·오건탁·강남규·김효삼·최재영·박지택·오건규·홍정호씨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11명이 초대됐다. 작가들은 감성미가 돋보이는 작품 22점을 선보인다.

문명호씨는 남도의 봄을 따스하게 그

려냈고, 백준선씨는 과실나무와 함께 한기한 오후의 정취를 돋보이는 색채로 표현했다.

류재웅씨는 독특한 채색기법으로 표현한 산수유 작품을 선보이고, 강남규씨는 자연이 가진 생명력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메시지를 단정다. 박지택씨는 집으로 향하는 인물을 통해 쓸쓸함과 고향집의 편안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남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무등산’ ‘가을산’ ‘감을 따다’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2-805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무등 서정’

당신도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화가’ 정병길전...31일까지 LH휴랑갤러리

태블릿PC인 아이패드를 문지르자 물감이 화면 속으로 퍼져나간다. 선을 긋고, 색을 칠하니 금세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

아이패드 화가로 불리는 정병길씨의 전시가 오는 31일까지 서구 치평동 LH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정씨는 ‘아이패드 그림이 생활 속으로’를 주제로 아이패드로 그린 작품과 유화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평소 유화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려왔던 정씨는 몇 해전부터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누구라도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디지털 드로잉’ 기법을 생각해 낸 것이다. 최근에는 ‘정병길의 아이패드 그림 교실’을 통해 일반에게 아이패드 그림을 전파하고 있다.

그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입선했으며, 현재 한국미협·국제화우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360-31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통나무가구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가구빌딩

홍스제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직수입 최저가 판매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